한국 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전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A Stndy of Living Pattern and Space Use in Korean Urban Hous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부교수 윤 정 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연구조교 이 은 경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sociate Professor : Jung Sook Yoon
Research Assistant : Eun Kyung Rhee

目 次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조사개요
Ⅳ. 주공간의 사용실태
Ⅴ. 주공간의 기능분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living pattern and the space use in Urban Houses. Seoul, Chunju, Ulsan were selected as study sites. The space organizing form and space use was investigated by means of interviews.

Thourgh various ways of analysis, we could find that the function of Anbang, Guesil, Buauk were multipurpose. Anbang was not only for sleeping but also for entertaining and family living. Guesil(living room) is slowly gearing into family and entertainment rooms. Buauk are changing to the dining room as well as kitchen.

*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Ⅰ. 서 론

주택은 인간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며 또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변하여 왔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이 변화 발전하면 그결과 주공간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게 되어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관계가 무너져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주택을 생활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스즈끼 시게부미외 1985).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생활과 그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 제 일보로서 주공간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여러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에 대응하는 주거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주공간 사이의 문제를 각각의 생활구조에 입각하여 그들의 주생활양식의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한 도시거주자의 생활형태는 현재 한국의 중심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여러계층의 가족이나 또는 현재의 농촌주민과는 다른 생활구조를 갖으면서 그들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근로자의 가정을 대상으로하여 생활과 공간의 관점에서 그 생활상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택거주자중 대학생 자녀를 둔 확대말기 축소초기 가족을 대상으로하여 주공간내에서의 생활과 공간사용과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도시생활에 대응되는 주거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의 형태적 특징과 주공간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인 주생활행위를 중심으로하여 취침공간, 단란공간, 식사공간, 취사공간, 접객공간에 대한 전용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주공간 사용의 질서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취침분리 및 식침분리의 현상을 파악한다.

3) 공간사용방식에 있어 입식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4) 이상의 결과에 의해 거주공간의 중심이 되는 안방과 거실(마루), 부엌의 현대적 기능을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본연구에서는 도시주택 거주자들의 주공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활이 비교적 안정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도시주택은 서울과 지방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방도시주택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호남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조사대상의 선정은 유의 목적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자녀가 서울 소재 Y대학의 건축학과와 주생활학과에 재학중 가구 96세대와 울산 소재 W대학에 재학중인 가구 45세대, 전주 소재 J대학에 재학중인 가구 55세대, 총 196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도시주택 거주자들 주공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을 채용하였다. 도시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도시주택의 주공간의 구성형태 및 주공간의 사용방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거주자의 가족특성과 주택특성에 관련된 일반 사항과 공간사용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의 조사도구를 작성하여, 훈련된 주거학 전공자들에 의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밖에 조사항목에 따라 평면채취 및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3. 조사기간

1) 예비조사 : 1988년 4월에 작성된 조사도구의 내용과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가구중 소수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 예비조사후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지역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서울지역 : 1988년 7월~8월
(2) 전주지역 : 1989년 5월~6월
(3) 울산지역 : 1989년 6월~7월

〈표 1〉 조사대상 거주자의 가족특성

빈도(%)

구분 \ 지역		서울 (N=96)	전주 (N=55)	울산 (N=45)
가족형	2세대	80(83.3)	47(85.5)	44(97.8)
	3세대	16(16.7)	8(14.5)	1(2.2)
가족수	3인~4인	22(22.9)	10(18.2)	8(17.8)
	5인~6인	65(67.7)	34(61.8)	30(66.7)
	7인~8인	8(8.3)	10(18.2)	5(11.1)
	9인이상	1(1.0)	1(1.8)	2(4.4)
직 업	전문직	21(21.9)	20(36.9)	6(13.3)
	관리직	10(10.4)	6(10.9)	6(13.3)
	사무직	52(54.2)	12(21.8)	16(35.6)
	판매 · 서비스	13(13.5)	8(14.5)	19(42.2)
	농 업	—	2(3.6)	—
	축산업	—	3(5.5)	—
	무 직	—	3(5.5)	2(4.4)
	무응답	—	1(1.8)	—
연 령	31~40세	—	1(1.8)	—
	41~50세	36(37.5)	14(27.3)	18(10.0)
	51~60세	57(59.4)	38(69.1)	26(57.8)
	61세 이상	3(3.1)	1(1.8)	1(2.2)
	무응답	—	1(1.8)	—
학 력	무 학	1(1.0)	1(1.8)	—
	국 졸	—	1(1.8)	3(6.7)
	중 졸	1(1.0)	3(5.5)	11(24.4)
	고 졸	15(15.6)	16(29.1)	23(51.9)
	대 졸	68(70.8)	30(66.7)	7(15.6)
	대학원졸	11(11.5)	3(5.5)	1(2.2)
	무응답	—	1(1.8)	—
월수입	90만원이하	26(27.1)	33(60.0)	22(48.8)
	90~130만원	28(29.2)	15(27.3)	12(26.7)
	130~170만	18(18.8)	3(5.5)	8(17.8)
	170만원이상	17(17.7)	3(5.5)	2(4.4)

4. 자료처리

현지연구의 조사기법에 의해 수집된자료는 각 사례에 대하여 기술 정리한 후 자료집을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내용별로 질적 분석하였다.

Ⅲ. 조사개요

1. 가족특성

일반적인 가족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유형과 세대주의 직업, 학력, 연령 및 월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조사대상의 가족유형과 가족수는 지역에 관계없이 2세대의 핵가족형이 지배적이며 5인~6인 가족이 가장 많았다. 한편 세대주의 직업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지역은 사무직(54.2%)이, 전주지역은 전문직(36.9%)이, 그리고 울산지역에서는 판매, 서비스직(42.2%)이 가장 많았다.

세대주의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많았으며 서울지역의 경우는 다른지역에 비하여 대학원졸의 고학력이 많았다.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수입을 조사한 결과 50만원 이하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그 범위가 나타났다.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월수입 분포가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90만원 이상이 65.7%인 반면 전주지역의 경우는 90만원 미만이 60%였다. 한편 울산지역이 경우는 90만원 미만과 90만원이상이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2. 주택특성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축시기, 주택규모, 주택유형을 조사하였다.(표 2)

조사대상 주택은 1960년 이전부터 최근에 건축된 것까지 건축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많았다.

주택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서울지역의 경우 40평이상 규모의 주택이 많았으며(56.3%), 전주와 울산지역은 40평이하의 주택이 각각

〈표 2〉 조사대상가구의 주택특성

빈도(%)

구분	지역	서울 (N=96)	전주 (N=55)	울산 (N=45)
건축 시기	~1960년	1(1.0)	5(9.1)	—
	61~1970년	7(7.3)	4(7.3)	3(6.6)
	71~1980년	41(42.7)	17(30.9)	24(53.3)
	81년 이후	47(49.0)	26(57.8)	18(40.0)
	무 응 답	—	3(6.7)	—
주택 규모	~20평	2(2.1)	5(9.1)	10(22.2)
	21~40평	36(37.5)	28(50.9)	28(42.2)
	41~60평	39(40.6)	13(28.9)	5(11.1)
	61~80평	9(9.4)	1(1.8)	1(2.2)
	81평 이상	6(6.3)	1(1.8)	1(2.2)
	무 응 답	4(4.2)	7(15.6)	—
주택 유형	단독주택	53(55.2)	32(58.2)	24(53.3)
	집합주택	43(44.8)	28(32.7)	11(24.4)
	병용주택	—	5(9.1)	10(22.2)

60%와 64.4%로 서울지역보다 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이 주종을 이루나,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도시에서는 상가 및 공장과의 병용주택도 있었다. 서울지역에서는 단독주택(55.2%)과 집합주택(44.8%)이 비슷한 분포였으며 지방도시에서는 단독주택이 집합주택보다 우세하였고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집합주택과 병용주택이 같은 분포였다.

Ⅳ. 주공간의 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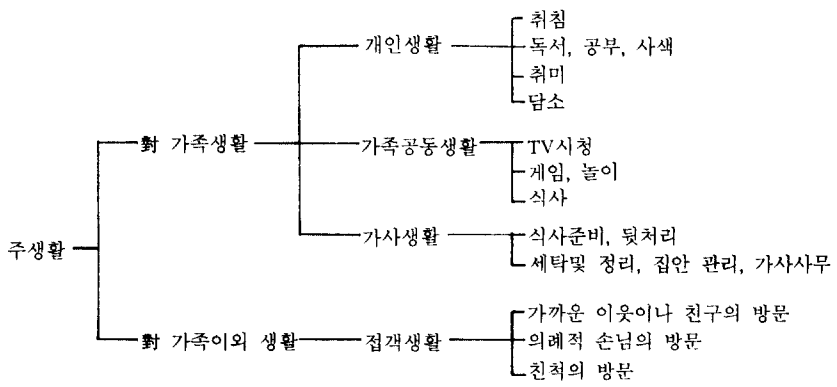
도시주택에 있어서 거주공간의 확보와 전용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영위되고 있는 도시주택에서의 주생활을 조사 분류하여 주행위별 공간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1. 도시주택에서의 주생활의 분류

주거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이하 주생활이라 칭함)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취침, 독서, 공부, 취미 생활과 가족이 함께 행하는 식사, TV 시청, 오락 등이 있으며, 그밖에 집안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개인 또는 가족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가사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친척이나 친지, 이웃, 의례적인 손님등의 접대등 가족이외의 사람들과의 교제나 접객등도 주거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생활의 형태는 크게 행위의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對 가족 생활)과 후자의 가족 이외의 생활(對 가족이외의 생활)로 구분되며 이 두 종류의 생활은 다시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표 3〉 도시주택에서의 주생활분류



행위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 생활행위별 공간

1) 취침공간

개인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대표되는 취침공간을 조사하여 주택에서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용화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침실 사용의 관계(표 4)로부터, 조사대상지역의 개인공간의 실태와 취침분리의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의 경우 부부와 자녀, 노인이 세대 분리되어 취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소수사례(3사례)에서는 부부와 자녀, 노인과 자녀 함께 취침하고 있었다. 전주 지역의 경우는 부부와 자녀, 노인과 자녀가 함께 취침하는 경우가 13사례(23.6%)로 서울지역보다 취침의 새대분리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부부와 자녀, 노인과 자녀가 함께 취침하는 경우가 4사례(9.1%)로 비교적 세대별로 취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같이 취침공간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취침공간은 세대별로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도시지역에서는 세대별 취침분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단란공간

조사결과 도시주택에서의 가족 단란행위는 주로 TV시청과 저녁식사 후의 담소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단란공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주된 행위인 TV시청과 담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살펴보았다.

(1) TV시청행위와 공간구성

TV를 어느 곳에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안방, 거실, 자녀방, 노인방, 부엌 등 다양한 공간이 나타났으나, 안방과 거실이 그 주된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공간에서 TV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적 행위로 간주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므로써 수반되는 가족의 단란행위로 볼수 없다고 사료되어 안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TV시청이 이루어지는 공간구성을 지역별 비교하였다.(표5)

〈표 5〉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의 경우 안방과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53.1%였으며, 그 다음이 안방으로 38.5%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모여 TV를 시청하기 보다는 가족별 행위이거나, 시간에 따라 공간을 옮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와 울산지역의 경우에서는 안방에서만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69.0%, 75.6%), 지방의 도시주택의 경우에는 TV 시청이 가족단란의 행위이며 그 중심공간은 안방으로 나타났다.

(2) 저녁식사 후의 담소행위와 공간구성

저녁식사 후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하는 공간은 TV시청을 하는 공간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안방과 거실 이외에 부엌(응답자가 부엌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안방, 거실, 부엌을 중심으로 저녁식사 후의 담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을 살펴본 결과 (표 6), 서울지역의 경우 식사후 담소가 이루어지는

〈표 4〉 취침공간과 공간사용자와의 관계

빈도(%)

지역 / 취침자	서 울(N=96)			전 주(N=55)			울 산(N=45)		
	안 방	자녀방	노인방	안 방	자녀방	노인방	안 방	자녀방	노인방
부 부	95(99.0)	—	—	51(92.7)	—	—	42(93.3)	—	—
부부+자녀	1(1.0)	—	—	4(7.3)	—	—	3(6.7)	—	—
자 녀	—	96(100)	—	—	55(100)	—	—	45(100)	—
노 인	—	—	14(14.6)	—	—	7(12.7)	—	—	—
노인+자녀	—	2(2.1)	—	—	—	9(16.4)	—	1(2.2)	—

〈표 5〉 TV시청이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빈도(%)

지역 / 공간구성	서 울 (N=96)	전 주 (N=55)	울 산 (N=45)
안 방	37(38.5)	38(69.1)	34(75.6)
거 실	8(8.3)	8(14.5)	8(17.8)
안방+거실	51(53.1)	9(16.4)	3(6.7)

장소는 안방+거실이 29.2%, 안방+거실+부엌에서의 24.0%로 나타나 TV시청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안방과 거실이 병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부엌이 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어 세 공간이 병용되었다. 한편 전주와 울산의 경우는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이었으며, 그 밖에 안방+거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서울의 경우 부엌의 입식화와 실내화로 이 공간이 가족단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전주와 울산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안방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부엌에서 담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안방과 거실과 병용되어 사용되는 3사례에 불과하여 부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전통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TV시청과 저녁식사 후의 담소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단란행위의 공간구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도시주택의 평면유형상 가족 공동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실과 LDK형, DK형 부엌이 가족의 단란공간으로 계획 되었으나 조사결과 실제 가족 단란행위 공간은 안방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의 도시주택일수록 안방이 지배적인 가족의 단란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3) 식사공간

주공간의 기능 분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족간의 취침분리와 식침분리가 이루어질 때 복잡하고 다양한 주생활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도시주택에서의 식사공간의 전용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사공간구성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식사가 주로 안방과 식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여기서 식당이란 식사가 이루어지는 전용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 형태는 부엌과 연결된 형(DK형), 거실과 연결되는 형(LD형), 그리고 독립된 식당(D형)을 포함한다).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식당에서만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7).

서울지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64.6%, 안방과 식당에서 병용되는 경우가 34.4%였으며, 안방에서만 하는 경우는 1%였다. 한편, 전주와 울산지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각각 54.5%, 48.9%였으나 안방에서만 식사를 하는 경우도 각각 30.9%, 28.9%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 완전한 식침분리의 형태라고 볼 수 없으나, 식사는 식사전용공간(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표 6〉 저녁식사후 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빈도(%)

공간구성 / 지역	서울 (N=96)	전주 (N=55)	울산 (N=45)
안 방	9(9.4)	27(49.1)	21(46.7)
안방+부엌	9(9.4)	2(3.6)	—
거 실	12(12.5)	8(14.5)	7(15.6)
거실+부엌	10(10.4)	4(7.3)	—
부 엌	4(4.2)	4(7.3)	—
안방+거실	28(29.2)	7(12.7)	13(28.9)
안방+거실+부엌	23(24.0)	2(3.6)	3(6.7)

〈표 7〉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빈도(%)

지역 / 공간구성	서 울 (N=96)	전 주 (N=55)	울 산 (N=45)
안 방	1(1.0)	17(30.9)	13(28.9)
식 당	62(64.6)	30(54.5)	22(48.9)
안방+식당	33(34.4)	5(9.1)	10(22.2)
기 타	—	3(5.5)	—

〈표 8〉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빈도(%)

	서 울 (N=96)	전 주 (N=55)	울 산 (N=45)
부 엌	95(99.0)	50(90.9)	43(95.6)
다용도실	—	—	1(2.2)
부엌+다용도실	1(1.0)	3(5.5)	—
부엌+거실	—	2(3.6)	—
마 당	—	—	1(2.2)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타공간 보다 전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취사공간

가사생활의 대표적 행위로서 취사행위를 선정하여 가족구성원의 일상적인 식사를 위한 취사행위와 김치담그기 행위로 나누어 그 사용공간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성상 김치 담그기 행위는 비교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일상적인 식사준비 행위와는 달리 재료의 양이 많고 행동폭이 넓어 공간사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일상적인 취사행위와 공간구성

일상적인 취사행위는 씻기, 다듬기, 조리하기, 뒷정리 등의 행위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부엌내에서 이루어졌다(표 8).

근래에는 부엌내에 입식 작업대가 도입되었고, 급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행위가 부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부엌이 설비나 규모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급배수 설비가 되어 있는 욕실, 다용도실, 마당 등으로 취사행위가 확장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김치담그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일상 취사행위가 부엌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김치 담그기는 공간사용이 복잡하게 나타났다. 김치담그는 행위를 다듬기, 씻기, 담그기로 구분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을 살펴본 결과(표 9)와 같았다.

씻기와 다듬기 보다는 담그기의 경우 부엌내에서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았고, 다듬기와 씻기는 부엌과 부엌이외의 급배수 설비가 된 다용도실이나 욕실, 마

〈표 9〉 김치담그기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빈도(%)

지역 / 공간구성	서 울(N=96)			전 주(N=55)			울 산(N=45)		
	다듬기	씻 기	담그기	다듬기	씻 기	담그기	다듬기	씻 기	담그기
부 엌	52(54.2)	38(39.6)	57(59.4)	20(36.4)	16(29.1)	34(61.2)	29(64.4)	28(62.2)	38(84.4)
다용도실	10(10.4)	19(19.8)	12(12.5)	6(10.9)	8(14.5)	6(10.9)	6(13.3)	5(11.1)	1(2.2)
마 당	3(3.1)	2(2.1)	—	20(36.4)	19(34.5)	8(14.5)	4(8.9)	5(11.1)	3(6.7)
욕 실	1(1.0)	3(3.3)	4(4.2)	—	5(9.1)	—	1(2.2)	1(2.2)	1(2.2)
부엌+다용도실	15(15.6)	17(17.2)	11(11.5)	2(3.6)	1(1.8)	—	1(2.2)	1(2.2)	—
부엌+욕실	4(4.2)	8(8.3)	5(5.2)	—	1(8.0)	—	1(2.2)	4(8.9)	—
마 당	6(6.3)	5(5.2)	3(3.1)	3(5.5)	3(5.5)	1(2.2)	—	—	—
기 타	5(5.2)	4(4.2)	4(4.2)	4(7.3)	2(3.6)	4(7.3)	2(4.4)	1(2.2)	2(4.4)

당 등이 병용되어졌다.

지역별 비교 결과, 부엌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는 울산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 전주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부엌과 부엌이외의 급배수설비가 된 실내공간이 병용되는 예가 많았다. 전주지역의 경우에는 마당에서 김치담그기가 이루어지는 예가 다른 지역에서 보다 높았는데, 이는 전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전통적인 습관과 생활방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김치담그기 행위는 일상 취사행위보다는 공간사용이 복잡하고 부엌내에서 모든 행위가 수용되지 못하여 급배수 설비가 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주택에서의 취사공간은 부엌과 이에 인접된 물을 쓰는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접객공간

도시주택에 있어서 큰 행사시의 접객은 점차 가정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나 일상적인 이웃이나 친구, 친척, 친지, 의례적 손님 등에 대한 접대는 아직도 가정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10).

이에 일상적인 접객 생활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공간구성을 살펴보았다. 도시주택내에서의 손님의 접객은 안방, 거실,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의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방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예가 적었으며, 안방+거실, 안방+부엌, 안방+거실+부엌 등으로 병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전주나 울산지역은 안방만을 접객공간으로 사용하는 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공간개념에 의해 안방이 다른 공간보다 의례적인 공간이며 손님접대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객의 종류에 따른 공간 사용은 서울의 도시주택에서는 가까운 이웃의 경우 안방과 부엌, 또는 안방과 거실이 같은 정도(28.1%)로 사용되고 있으며, 친척, 친지의경우에도 안방과 부엌, 안방과 거실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례적인 손님의 접대공간으로는 거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57.3%)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안방이나 거실, 부엌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친지들에게는 비교적 개방될 수 있으나 의례적 손님에게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와 울산지역에서는 서울지역에 비하여 내객의 종류에 관계없이 안방이 중요 접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거실의 사용이 증가하여 접객공간으로 안방과 거실이 병용되거나 거실만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안방 중심의 생활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0〉 내객의 종류에 따른 접객 공간구성

빈도(%)

지역 / 공간구성 \ 내객의종류	서 울(N=96)			전 주(N=55)			울 산(N=45)		
	A	B	C	A	B	C	A	B	C
안 방	11(11.5)	10(10.4)	13(13.5)	20(36.4)	27(49.1)	31(56.4)	12(26.7)	21(46.2)	29(64.4)
안방+부엌	27(28.1)	21(21.9)	49(51.0)	1(1.8)	—	—	—	1(1.2)	—
거 실	21(21.9)	55(57.3)	10(10.4)	11(20.0)	18(32.7)	18(32.7)	9(20.0)	—	1(2.2)
거실+부엌	8(8.3)	2(2.9)	4(4.2)	4(7.3)	—	1(1.8)	6(13.3)	—	—
안방+거실	27(28.1)	21(21.9)	49(51.0)	—	6(10.9)	—	15(33.3)	9(20.0)	14(31.1)
안방+거실+부엌	21(21.9)	7(7.3)	16(16.7)	2(3.6)	—	2(3.6)	2(2.2)	—	—
기 타	3(3.1)	—	3(3.1)	6(10.9)	2(3.6)	2(3.6)	5(11.1)	—	—

A :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B : 의례적인 손님 C : 친척 · 친지

3. 공간별 기거양식

주공간의 사용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는 행위에 따른 공간사용 뿐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질 때의 기거양식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거양식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이었다. 그러나 서구식 주택유형이 보급되고 입식가구가 들어 오면서 근래에는 소파, 식탁, 책상, 침대등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이들 입식가구에 의하여 기거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식화 현상은 모든 주생활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행위내용과 공간에 따라 입식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기거양식은 공간내의 물리적 상태가 입식의 가구를 도입한 경우에도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여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각공간의 기거양식을 입식, 입식+좌식, 좌식으로 분류하여 설문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거양식을 파악하였으며, 앞에서 살펴본 취침, 단란, 식사, 취사, 접객등의 주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안방, 자녀방, 노인방, 거실, 부엌을 중심으로 각공간의 기거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방, 자녀방, 노인방

취침과 가족구성원의 개인생활행위의 중심이되는 안방, 자녀방, 노인방의 기거양식을 조사한 결과(표 11) 지역에 관계없이 안방과 노인방은 좌식의 기거양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취침과 개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기거양식은 안방과 노인방에서는 전통적인 습관대로 지역에 관계없이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방의 경우는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입식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완전히 입식화 된 경우보다는 입식과 좌식의 절충식이 일반적이었다.

2) 거실

가족의 단란과 접객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는 거실의 경우의 기거양식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입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6.9%), 입식과 좌식의 절충식을 취하는 경우(39.6%)가 두번째로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어 물적인 측면에서의 입식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경우 입식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어 입식의 기거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습관에 의하여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면서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표 12)

전주와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거실에서도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입식과 좌식의 절충식, 입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경우에는 자녀방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의 경우는 자녀방의 경우보다 더 입식화 되어 있으나, 전주와 울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입식화 진행의 초기단계인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3) 부엌

부엌은 식사와 취사의 중심공간이며 근래에 와서

〈표 11〉 취침공간의 기거양식

빈도(%)

지역 / 공간구성 \ 공간	서 울(N=96)			전 주(N=55)			울 산(N=45)		
	안 방	자녀방	노인방	안 방	자녀방	노인방	안 방	자녀방	노인방
좌 식	84(87.5)	47(20.8)	14(93.3)	45(81.8)	53(53.5)	6(100)	37(82.2)	54(54.0)	1(100)
좌식+입식	9(9.4)	103(45.6)	1(6.7)	9(16.4)	32(32.3)	—	5(11.1)	23(26.4)	—
입 식	3(3.1)	76(33.6)	—	1(1.8)	14(14.1)	—	3(6.7)	17(19.5)	—

〈표 12〉 거실의 기거양식

빈도(%)

지역 / 기거양식	서 울 (N=96)	전 주 (N=55)	울 산 (N=45)
좌 식	13(13.5)	18(42.9)	18(43.9)
입식+좌식	38(39.6)	13(31.0)	15(36.6)
입 식	45(46.9)	11(26.2)	8(19.5)

는 단란과 접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단란의 경우는 식사 행위의 연장으로 식사후의 단란이나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이므로, 부엌의 기거양식은 취사시의 기거양식과 식사시의 기거양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취사시의 기거양식은 대부분이 입식의 싱크대를 사용하는 입식의 기거양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사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각 행위시의 기거양식을 살펴본다면 보다 다양한 기거양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시의 기거양식은 지역에 관계없이 입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좌식을 취하는 경우가 서울과 울산지역에서는 소수 사례가 나타났다. 전주지역의 경우에는 부엌에서 좌식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표 13).

따라서 부엌의 경우가 주택내의 어느 공간에서 보다 입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입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주택내에서의 각 공간에 따른 기거양식을 살펴본 결과, 도시주택에 있어서 각공간에서의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엌이 가장 입식화되어 있었으며 거실, 자녀방의 순으로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안방과 노인방은 아직 좌식이 지배적이었으며

〈표 13〉 부엌의 기거양식

빈도(%)

지역 / 기거양식	서 울 (N=96)	전 주 (N=55)	울 산 (N=45)
좌 식	12(12.5)	13(38.2)	5(13.9)
입식+좌식	8(8.3)	—	2(5.6)
입 식	76(79.2)	21(61.8)	29(80.6)

또한 입식과 좌식 이외의 입식과 좌식이 혼용되는 입식+좌식의 기거양식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 등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입식화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습관에 의해 바닥에 앉는 경우가 병행되는 것으로 입식화의 과도기적 현상이거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독특한 기거양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V. 주공간의 기능 분석

주택내에서 각실의 기능은 그 실에서 행해지는 주생활 행위의 종류와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의 행위별 공간사용 실태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침분리, 식침분리

주택내에서의 주생활행위 질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주택에서의 취침분리정도와 식침분리 정도를 살펴보았다.

조사주태의 거주자들은 세대별 취침 분화는 이루어져 부모세대, 노인세대, 자녀세대가 세대분리되어 취침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취침공간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자녀들과 노인이 취침하는 자녀방과 노인방은 개인의 취침과 기거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개인생활 공간인데 비하여, 부부의 취침이 이루어지는 안방의 경우는 부부의 개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가족의 단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므로, 전용화된 취침공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실의 경우에도 세대분리되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독립된 개인생활공간이었으나 각 개인마다 독립된 자녀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세대별 취침분리는 이루어졌으나 안방의 경우 취침공간의 전용화는 이루어져 있지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주택에서의 식침의 분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식사는 전용화된 식사 공간(D, DK, LDK)에서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고, 전주와 울산지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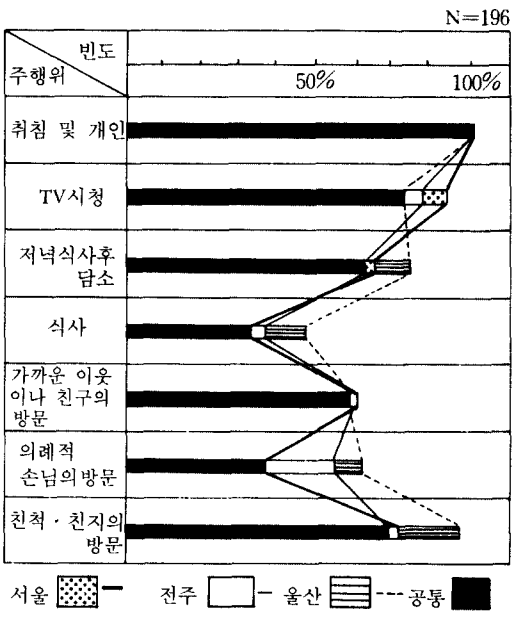
서울지역에 비하여 안방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식침분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간의 기능

1) 안방

전통주택에서는 안방은 부엌과의 관계가 긴밀하였고, 배선이 편리하여 안방에서 식사하였으며 가족단란생활도 자연스럽게 안방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식당이나 거실공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주거생활에 익숙해 있던 습관에 의해 서구의 영향으로 변화된 평면에서도 안방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가족의 단란, 접객행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안방의 기능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지역에 관계없이 안방은 취침뿐 아니라 가족의 단란, 식사 접객의 행위가 모두 이루어지는 다용도 공간이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전주지역에 비하여 울산지역에서 식사와 의례적 손님, 친척 · 친지들의 접대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안방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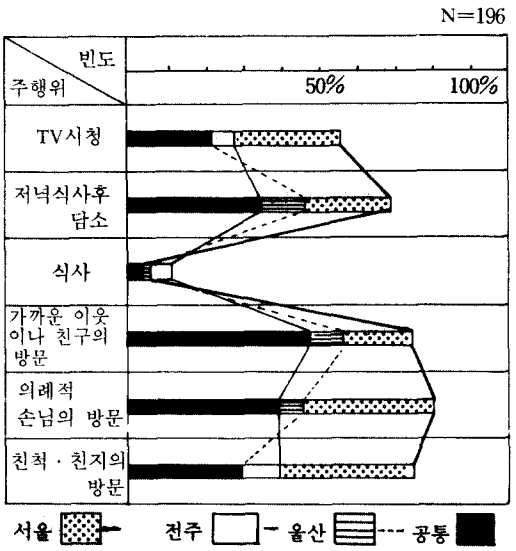
2) 거실

전통주택에 있어서 대청마루가 서구 주택평면의 영향을 받아 서구식 Living-room의 성격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면에서는 서구주거와 비슷하나 내적인 면에서는 관습, 생활양식에 따라 과도기적 절충식 성격을 갖는다.

또한 최근에는 식침분리와 가족본위의 거실중심 주거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통로로 사용되었던 기능이 분화하여 복도를 통한 각 실로의 진입이 이루어져 거실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거실의 기능 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를 살펴보면 가족단란행위인 TV시청, 저녁식사후 담소와 접객 등이 있다. 지역에 따른 거실의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지역에 관계없이 거실은 가족의 단란과 접객의 장소이나, 전주나 울산지역에 비하여 서울지역에서의 거실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의 거실이 기능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생활면에 있어서도 거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그림 2〉 거실의 기능

가족단란과 접객공간으로의 거실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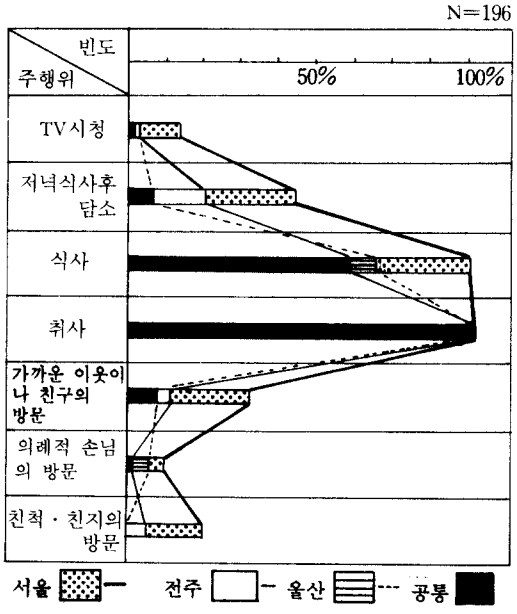
3) 부엌

전통주택에서 부엌은 방의 난방과 취사가 행해지던 공간으로 외부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주택평면 영향으로 부엌에서 난방이 분리되고 실내화되면서 부엌을 취사 뿐 아니라 식사 행위도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아파트 평면의 영향으로 부엌과 거실의 연결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가족들의 단란행위가 부엌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에 따른 부엌의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3〉와 같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엌은 식사와 취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나, 가족의 단란과, 접객행위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부엌에서 가족의 단란과 접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른지역에 비하여 많았다.

Ⅵ. 결론 및 제언

도시주택 거주자들의 주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전주, 울산지역의 확대말기, 축소초기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부엌의 기능

첫째,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주공간과 각 공간의 기능을 살펴 본 결과 도시주택에 있어서, 식침분리와 취침분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서울의 경우 대부분이 취침분리, 식침분리 되어 있는데 반하여 전주와 울산의 경우에는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주택에서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공간중에서 입식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부엌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거실과 자녀실의 입식화 정도가 높았는데,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입식화 정도에 비하여 사용시에는 입식과 전통의 습관에 의하여 좌식으로 사용하는, 입식+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은 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안방과 노인방에서는 대부분이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고 있었다.

세째, 도시주택에 있어서 안방은 아직도 부부의 개인생활 공간인 동시에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용도 공간이었다. 또한 거실이 가족의 공동생활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여 아직은 안방에서 가족단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거실의 기능 분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가족의 단란과 접객이 거실과 안방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기능분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부엌이 식사의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여,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가족의 단란과 접객행위가 부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전주와 울산의 경우에도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나, 가족단란이나 접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수사례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도시주택에서의 주생활은 질서가 확립되고 주공간의 기능이 분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다른공간에 비하여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생활구조와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대상가족의 주생활양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생활의 구조는 사회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대 및 지역적 특성과 가족의 상호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생활양식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1) 현대주택 뿐 아니라 전통주택 및 근대주택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2) 도시주택 이외의 농촌주택, 어촌주택을 대상으로하는 지역적 연구가 요구된다.

3) 다양한 가족계층을 대상으로한 횡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渡邊光確 外(1983), 「生活様式의 研究」, 財團法人 新住宅普及會. 住宅建築研究所.

2) 스즈끼 시게부미 외(1985), 「건축계획」, 서울:세진사.

3) 김경동 외(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박영사

Amos rapoport(1969). House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4) 김 걸(1977), 「집합주거에서 거실을 중심으로한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최명찬(1984), 「중소도시 서민 아파트의 공간이용에 관한 계획학적 조사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함상우(1986),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웅섭(1986), 「아파트의 공간사용규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조성희(1988), 「주택 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